

유럽호스피스 연수를 마치고 I

노유자수녀

썬쁠 요양원 · 전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교수 · 전 한국 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사랑하는 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원여러분
오래 만에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다. 저는 유럽호스피스 연수를 위해 2002년 한국을 떠나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프랑스)에 있는 호스피스기관에서 연수를 계획대로 마치고 올해 무사히 귀국 했습니다. 이 은혜로운 연수기간을 잘 마치고 돌아 올 수 있었음은 회원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2년 동안 느낀 체험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3월 16일 수녀님, 친구, 친지들의 환송 속에 유럽호스피스 연수 길에 올랐다.

런던으로 가는 KAL기에 오르며, 주님께 감사와 청원 기도를 올렸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연수였지만 막상 한국을 떠나려니 기대감과 목적 달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약간은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늘 하느님께서 함께하시고 특히 호스피스와 관련된 일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놀랍게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기에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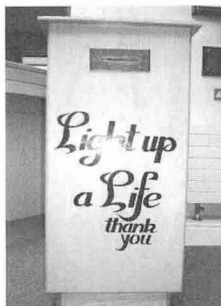
연수기간동안 18개 호스피스 기관을 거치면서 모든 기관 하나 하나가 소중하게 여겨졌지만 그중에서 몇 군데를 소개해본다.

1. Our Lady's Hospice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기관으로 처음으로 호스피스연수를 시작한 곳이다.



특히, 이 곳은 1997년 런던에서 열린 호스피스학회에 참석 후 방문하였을 때 인상적이어서 꼭 다시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5년 만에 다시 찾은 나를 반가이 맞이한 분은 전에 만난 적이 있는 Helena 원장수녀님이었다.



더블린 중심가에서 약간 남쪽으로 자리 잡은 Our Lady's Hospice는 자비수녀회 (Charity of Sisters)가 1879년 9월에 설립한 독립 호스피스 센터이다. 이 호스피스의 입구에서 눈에 띄이는 표어는 "Lift up Life"이다. 그들의 돌봄의 정신은 믿음에 바탕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며 총체적 돌봄으로 대상자의 삶을 들어 높여주는데 있다.

이 호스피스센터는 126년 전 6병상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86병상의 규모이며, 주간호스피스와 가정 호스피스센터, 도서실, 성당 및 기도실, 어린이

놀이실, 아로마요법실, 음악요법실, 작업요법실 등의 여러 요법실이 있다. 이 곳은 연간 1,5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며, 다양하고도 전문적인 학제간 팀 접근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지지를 통해 환자와 간호제공자의 삶의 질을 증가시켜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400명 이상의 전임 인력과 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AIDS 환자 관리, 류마티스와 재활치료, 외래 서비스, 물리치료, 작업치료, 대체요법과 지지치료, 사회사업, 자원봉사, 원목 활동, 사별간호 등이다.

그밖에 교육과 연구면에서도 더블린대학교와 연계하여 여러 명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인상깊었던 점은 Helena 원장수녀님의 호스피스를 발전시켜 가는 열정 그리고 아일랜드 호스피스계에서의 역동적인 활동이며, 아로마요법실에서 일하는 Ann수녀님의 탁월한 아로마요법 관련활동이었다. 전문 아로마요법사 수녀님은 아일랜드의 아로마요법의 발전에 공헌이 컸던 수녀님으로서 이 곳에서 10년 넘게 아로마요법과 발반사요법을 적용하여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학회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호스피스의 요법실은 아일랜드 아로마요법 발전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다.

연수기간동안 이 수녀님의 주선으로 아로마요법 교육과정에 참석할 수 있었고 여러 아로마요법 전문가들과의 만남으로 유럽 아로마요법의 실상을 좀 더 알 수 있었다.

이 호스피스의 Osiorain의사, Marie의사가 환자들을 대하던 태도와 섬세한 마음 그리고 학문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던 모습은 오래 기억 될 것 같다. 또한 호스피스 팀원들의 모임에서 그들이 환자중심의 결론을 내리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협력해나가는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역시 세

계에서 일찍 시작한 호스피스답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스피스 실습을 마치고나서 2003년 여름에 개원할 부속 호스피스 Blackrack Hospice에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정들었던 환자들, 그리고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였다.

2. Blackrack Hosp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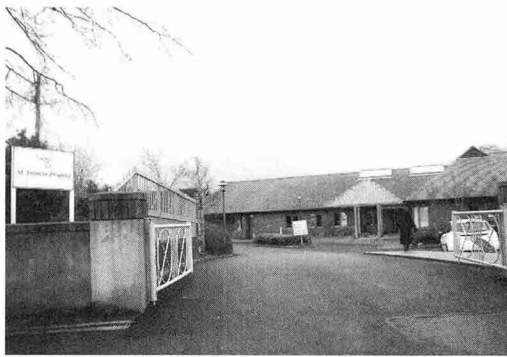
이 호스피스는 Our Lady's Hospice 의 부속 호스피스로서 2003년 7월에 문을 열었으며, 입원 호스피스, 주간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센터, 교육실, 쾌적한 식당과 휴게실 등 좋은 시설들을 갖추고 있었다. Blackrack 호스피스는 모 기관인 Our Lady's Hospice에서 18세의 암 환자가 호스피스 팀의 도움으로 심한 통증과 다른 증상들의 조절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시간과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던 모습을 지켜 본 그 환자의 삼촌이 감동하여 새로 지어 봉헌한 호스피스이다.

이 호스피스는 갈멜 수녀원을 매입하여 성당은 보존하면서 주변의 넓은 땅에 아름답게 지은 2층 건물로서 12병상 규모인데 모두 독방형태이며, 1층에는 병실과 한 쪽으로는 주간호스피스를 위한 시설인 완화요법실들, 상담실, 물리치료실, 작업요법실 등이 있다.

2층에는 가정간호를 위한 사무실과 행정자 사무실, 그리고 봉사자와 가족을 위한 넓은 공간이 마련

되어 있다. 정원에 있는 연못과 갖가지 나무들, 환자들과 가족을 위한 명상과 휴식 공간 등 세심히 배려를 해서 마치 안락한 가정처럼 아름다운 곳이다. 저녁노을이 비치는 그림 같은 연못이 있는 호스피스로 Our Lady's Hospice의 원장인 헬레나 수녀가 나를 안내해 주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비수녀회의 창설자의 정신, 호스피스가 발전되어 온 과정, 현재의 운영과 두 호스피스의 미래에 대한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3. St. Francis Hospice



25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이 호스피스는 Dublin의 북쪽 큰길가 공원 옆에 자리하고 있다. 처음엔 작은 건물에서 주간호스피스로 시작되었으나 많은 독지가와 주민들의 협력으로 현재는 30병상과 좋은 시설을 갖춘 도서관, 또 국제학술 세미나도 치루는 좋은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어린이놀이장과 특별히 사별어린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특수유리시설이 장착된 큰 방을 이용하여 역량있는 전문가들에 의해 사별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주간호스피스센터도 넓은 공간과 상담실, 치료실, 미용실, 야외오락실까지 갖추어진 완벽한 시설과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곳 주간 호스피스센터에서도 다른 주간호스피스센터에서처럼 각종 프로그램 즉 아로마요법, 음악요법, 예술요법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여기

에서 인상적인 한 환자를 만났다. 이 환자는 유방암 환자로서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자살을 기도한 적도 있었으나 호스피스 팀, 특히 예술요법사의 인내롭고 지혜로운 도움으로 안정을 찾고 밝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환자는 미술요법을 통해 변화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나와 같이 사진을 찍자고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였다. 내가 이 사진을 한국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도 되겠느냐고 하니 영광이라고 대답하며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짧은 역사에 비해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주간호스피스와 교육시설이 훌륭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기관으로 앞으로 부속 호스피스도 계획 중에 있다고 간호부장 겸 부원장인 Margaret수녀님이 설명하였다.

4. St. Christopher Hospice



현대 호스피스의 모델이라 일컫는 St. Christopher Hospice를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이 호스피스는 런던에서 1967년에 시작되었으며 현대 호스피스발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62개의 병상을 가진 입원 호스피스, 주간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로 구성되어,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고 특히 도서자료가 풍부한 도서실과 호스피스 관련 정보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호스피스 전문가들을 위한 특수 교육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이 호스피스에서 일주일동안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여러 나라 호스피스 전문가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친분을 쌓으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호스피스설립자인 Cicely Saunders 박사님의 강의와 개인적 만남이었다. 늘 바쁜 그 분과 다행이도 특별면담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Cicely Saunders 박사님은 여전히 지팡이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전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었다. 자신이 걸어온 호스피스의 길, 발전과정과 장래 계획들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한국 호스피스의 발전과 나의 작은 꿈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 주었다. 책에서 보고 들은 것처럼 이분의 숨은 노력과 희생은 역시 현대 호스피스의 선구자이면서 세계 호스피스의 대모라는 칭송을 받을만한 분이라고 느껴졌다.

5. St. Joseph's Hospice

14년 만에 다시 찾은 성 요셉호스피스는 새 건물 건축으로 한참 분주하였다. 이 호스피스는 1905년 런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Hackney에 세워져 그 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다.

현재 63명상인 호스피스는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여러 프로그램도 확장하겠다고 하였다. 대체요법을 지역 주민들에게까지 확대 봉사하는데 이 곳에서 아로마 요법사가 환자와 지역 주민들의 심신에 안정을 주는 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이 호스피스에서는 많은 교육 자료와 본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원장 수녀인 Teresa Clarke 수녀님과의 만남을 통해 호스피스의 시작과 걸어온 길,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그 수녀님은 한국의 호스피스 발전과 당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 서슴치 말고 호스피스의 정신과 뜻을 계속 알리는 일에 전념 하라고 당부하였다. 때로는 수녀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 하여도 용감하게 전진하라면서, 자신도 그랬고 현재도 호스피스 운영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을 땐 기도하면서 어느 곳이든지 참여한다고 말하였다.

수녀님은 연민의 눈으로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를 해주었는데 가슴이 뭉클하였다. 손을 꼭 맞잡고 기도 중에 서로 기억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헤어졌다. 지금도 그 수녀님의 시선과 따뜻한 격려의 말이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

6. Marie Curie Cancer Care (MCCC)

이 호스피스는 Marie Curie Charity 재단에서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에 11개 호스피스 센터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말기환자 뿐만 아니라 암환자 치료에도 크게 기여 하는 재단 산하의 한 호스피스이다.

런던에서 동쪽으로 기차를 타고 두 시간 정도 가면 Caterham, Surrey에 있는 Marie Curie Hospice 센터에 다다른다. 이 곳 아름답고 편리한 기숙사에 머물면서 실습을 하였다. 이 호스피스 역

시 1997년에 잠깐 방문한 후 다시 가보고 싶었던 호스피스라서 감회가 새로웠다. 6년 전에 만났던 Jane Wand원장의사와 Kath Jenkins 간호부장이 무척 반갑게 맞아 주었다.

이곳 주간호스피스에서 만난 인상적인 사람은 예술치료사 Moira선생이었다. 그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 호스피스를 찾는 환자들에게 그림 그리기, 수놓기 등을 통해서 마지막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찾고 삶의 의욕을 불러 일으켜 마치 죽음을 예기치 못하는 사람들처럼 서로 친교하면서 기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스코트랜드의 Glasgow에 있는 한 MCCC도 방문하였는데 같은 목적과 정신에 따라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MacMillan 간호사들과도 연계하여 환자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다. 이 재단의 상징은 노란 수선화로 어느 곳의 호스피스에 가나 책자들의 표지, 장식물, 건물 등에 새겨져 있어 인상적이었다. 이 재단 산하에 여러 개의 자선가계가 곳곳에 세워져 기금 마련에 한몫을 하고 있었다.

7. Kirkwood Hospice

영국에서 북쪽으로 기차를 타고 3시간쯤 가면 아름다운 소도시 Huddersfield에 있는 Kirkwood 호스피스에 이르게 된다. 이 호스피스는 1987년 3월에 시작되어 현재는 입원 호스피스, 주간호스피스, 가정호스피스센터가 조화를 이루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호스피스 설립은 그 지역에 선의의 뜻을 가진 몇 사람이 호스피스 설립을 위한 취지를 가지고 모임을 통해 1인당 5페니 모금으로 시작하여 이룩된 32명상규모의 호스피스이다. 건물 하나하나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주간 호스피스와 교육센터 도서실이 있는 2층 건물, 그리고 약간 떨어져 봉사자와 기금모금위한 건물이

있다. 그 옆으로 최근 새로 건축된 아름답고 아담한 Family care center가 있었다. 이 3개의 건물 주변에는 유명한 정원사들이 가꾸었다는 아름다운 정원, 산책로, 연못 등이 있다. 이 호스피스는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나 마치 그림처럼 이상적인 시설을 갖춘 곳이다.

주간호스피스에 환자들이 모이면 사방에 둘러있는 꽃과 나무를 바라보고, 또 예술가와 함께 카드 그리기, 실크물감들이기, 그림그리기, 시와 글쓰기, 원예 등 자기들이 원하는 코너에서 친교하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환자들과 함께 나도 사후에 걸쳐 실크 머플러에 그림을 그리고 물들이는 기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Family Care Center 건물이 별도로 있어서 그 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간호사로 아로마요법사가 되어 10년 동안 Family Care Center 치료실에서 일하는 전문 로마요법사와 뇌암 말기환자를 만났다. 이 36세 된 젊은 남자환자는 치료실에 주 2회 찾아 오는데 아로마요법을 받고 날을 듯한 기분이라며 아주 편안해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한편 Koala라는 사별가족어린이 모임이 특이하게 운영된다.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지만 인상적인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치의가 참여하여 아이들의 의문을 풀어줌으로써 사별로 인한 슬픔치료에 큰 도움을 준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특히 인상적이었던 분은 늘 웃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던 Mike wood 신부님이다. '호수천사'라 불리던 이 신부님은 원목자로서 어느 모임이나 참석하여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Family Care Center에서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많은 체험들, 그리고 예술요법을 통한 환자,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도움은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환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는 듯 모두들 즐겁게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